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84호 현대불교
2008년 6월 18일(음력 5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여여하고 실상이면서 실천!

마산의 여러분과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와서 맨바닥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지 어떤 뉘는 못하겠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이렇게 맞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여러분의 그 길잡이를 맞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종잡을 수 없어서 미래의 정신세계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물질에만 여념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정신세계를 한 번도 실험해 보지 않고, 나를 뒤돌아보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자유스럽지 못하게 사는 거지요.

오늘 이렇게 마산에 왔으니 상식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문제들을 말씀드리지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거기 사람들은 불교라는 것이 만날 미신만 숭상하고 그러는 종교인 줄 알았습니까. 거기에는 일본 불교, 티베트 불교, 기독교, 가톨릭, 통일교의 여러 분이 많이 모이셨습니다. 그때 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다."라고요. 삼정 간판마다 이름이 있듯이 종교도 그와 같습니까. 내 종교가 옳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지 만약에 귀머거리가 "나는 뇌성벽력이 울리고 천둥이 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나는 천둥 치는 걸 모른다. 그러나 천둥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귀머거리 아닌 사람이 듣고는 "아, 천둥 번개가 왜 없느냐. 지금도 천둥이 쳤다. 네가 못 듣는 거지."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째 말합니다. 불교라고 할 때, 불(佛)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가 말하고 서로 화목하게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것도 바로 교(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아닌 게 하나도 없고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똑같으니 그 아픔이 똑같고, 아픔이 똑같으니 부모자식 시간 또는 형제지간도 모두가 다 똑같은 겁니다. 별레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저런 별레도 생명이 있고 귀중하지요.

또 한 가지는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고 이 세상만사의 살림살이가 우리의 근본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세번째는 우리가 공생 공용 공체 공사화 하고

돌아가는,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는 이 사실도 또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물질세계의 50%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은 무상하다고 하지요. 부서지고 깨지고 변하고 없어지고 죽고, 이렇게 변화 무쌍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이라고 말하는 이치입니다. 우리 사람 살아가는 도리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직결돼 있는 우리 한마음이 어떻게 돼야 하나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토마토만 곁어서 했는데, 두서없는 말이 라고 홍보지 마시고 잘 새겨들으세요. 인연성, 즉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상점에 가서 뭐를 사도 인연이요, 꽃을 봐도 인연이요, 마당을 걸어도 인연이요, 바람이 불어도 바람과 인연이요, 불을 봐도 불하고도 인연이요, 모두가 인연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연에 따라서 같이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에 있어서는 크고 작고 못하고 잘나고 높고 낮고 이런 게 틀이 아니요, 동서가 틀이 아니요, 여자 남자가 틀이 아니요, 지렁이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틀이 아니요, 모두가 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을 했죠.

만봉봉에 연꽃 피어 싱긋 웃으니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다 집어넣었더라.



그림 · 최주현

한마음 도리에 근본이 들었으니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모든 생명과 모습들은 다 거기에
한마음, 한법, 한마당, 바로 한밭로 되겠느니라.

그런 이치가 있듯이 말입니다. 지금 불바위가 돌아가는데, 수없는 불바위가 돌아가고 별성들이 반짝거리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도 조그마한 별들이, 생명들이, 모습들이, 의식들이 전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몸뚱이는 지금 스러져 가고 있을 겁니다. 송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어디서 생겼나? 이게 인과성, 인연성에 대한 얘깁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살던 인과, 즉 말하자면 악과 선은 모두 여러분 속에 있으니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게 치밀기도 하고, 타의에서 들어오는 유전성이나 세균성이나 영계성이나 업보성이나 인과성이 내 안으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전부 작용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을 보신다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실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가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지켜보신다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짐작하시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악과 선은 거기에 묻혀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제법(四諦法)을 설하신 거지요. 고(苦)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다. 그런데 그 고통어리를 누가 그렇게 지었느냐 이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짙어지고 나왔는가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끌어 드리는 공부, 마음은 제가 없으니 마음과 마음, 의식들을 한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라는 겁니다. '한마음' 하면 모든 내면세계와 외부세계를 한데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생명 있는 거, 마음을 움쭉거리려는 거, 말없이 말을 이십전심으로 전달하고 돌아가는 무정물, 식물 이런 모든 것들의 그 마음들이 한데 모여서, 모두 이 안에 있는 생명들의 그 의식들, 마음들이 같이 한데 모여서 모두 한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한마음' 하는 것은 모두가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한마음' 하는 겁니다. 한 부처님께서 한 꽃을 들었을 때에 그 꽃 안에 이 세상만사가 다 들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두서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뒤를 잘 재서 '하나'로 돌아가신다면 됩니다. '하나'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봤을 거고, 어떻게 상대성 원리가 있을 거고, 어떻게 부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하늘이 있다 땅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천지, 모든 그 자체를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일시무시요 일종무종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발자취를 짚어지고 다니지도 않고, 자취마다 없어집니다. 모든 게 공해서, 말을 했으면 과거로 금방금방 돌아갑니다. 생각 하나 잘못하면 구멍이에서 빠낼 수 있고 생각 하나 잘못하면 구멍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 마음으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꼼짝 못하게 하는 여러분이 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저 지구 바깥으로 벗어나려 한다 못 벗어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 마음으로 집에 갔다 오라고 하면 갔다 올 수 있으시겠지요. 사실 눈 뜨고 보는 것은 환계가 있어도 심안으로는 이 세상만사를 다 보고도 남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기로 듣는 것은 세상만사를 다 탐험하면서 다 듣고, 삼라만상 대천세계 그 모든 생명들의, 모습들의 그 말을 이십전심으로 다 듣고 다 움쭉거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 나쁘고 좋고 그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처 중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대 성인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체 부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또 조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조화를 이루

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조상은 따로 있고, 부처는 부처대로 따로 있고 법신은 법신대로 따로 있고, 문수 말입니다. 보현은 보현대로 따로 있고 약사는 약사대로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니, 요기 놓고 빌지 않으면 안 되고 조기 놓고 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좁기 때문에 넓게 지혜를 가지고 살지 못한다 이겁니다. 삼학(三學)은 삼학대로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계(戒)도 정(定)에 들고 혜(慧)도 정에 들었으니, 그 정마저도 모두가 공해서 쉼 사이 없이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니 어떤 걸 할 때 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모두가 공이라고 했습니다. "공과 색이 틀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쓸 양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한테 아마 다 전달되기는 어렵겠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들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컴퓨터도 있고, 속명통이라는 그 자체를 컴퓨터라고 그랬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는 탐지기와 또 신축물, 즉 말하자면 오고 감이 없는 팩시밀리, 또 천이통 즉 무전통신기, 그리고 우리 천체망원경 천안통, 이 다섯 가지를 바로 오십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십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다 재료로 주어져 있고 그 시스템이 다 돼 있다는 얘깁니다. 어서 귀가 트이고 눈을 떠서 여러분이 자유인이 돼야만이 흐트러져 살 수 있고 싱긋 웃으면서 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섯 가지 시스템의 재료는 무엇이냐, 여러분은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재료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미서기로 비유한다면 재료가 있어야 거기가 날고 갈죠. 그런데 재료도 있고 미서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 오십통의 시스템은 바로 미서기와 똑같은 얘깁니다. 어느 거든지 들어가면 그냥 갈려 나오는 자동적인 기계와 같습니다. 우리 자동적인 기계와 같다 이겁니다. 무심도리의 자동적인 기계와 같은 이 자체는 여러분이 과거에 사실 때, 지금 우리가 살듯이 살 때에... 이거부터 얘기하겠군요.

미래의 과거는, 미래의 정신세계에서 볼 때에 우리 지금 현재가 과거입니다. 이 과거에서 볼 땐

26면으로 계속

한국불교여래종
입종안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종하여
여래의 사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문도를 환영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행자(남,여) 모집

불교학 연구 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 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역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기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 건너)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약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때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때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거저런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입종안내
대한선불 조계종

총무원장 **영곡 효주**
총회 의장 **법달 원정**
교육원장 **효타 원공**
사정원장 **무착 효산**
호법국장 **무타 대한**

각 지역구 총무원장 입종을 환영합니다

대한선불 조계종은 선을 생활화하는 종단으로써
불기 2552년 5월 17일 창종 하였습니다.
대승적 불교를 지향하며 이 땅에 불국토 건설을
함께하실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 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24-4번지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010-7121-9406

■ 총무원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53-1번지 무진암
전화 054)744-0181 / 010-3178-1223